

장흥군-강진군민 ‘장흥댐 어업허가’ 마찰

옴천 주민들 “원거주민 허가 신청 불허 부당”

장흥군 “상수원 보호 우선” 특정한 혜택 안돼

장흥댐 내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강진군민과 관리주체인 장흥군 간 내수면 어업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장흥댐 내에서 어업허가 취득은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인 강진군 옴천면 일대 주민들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장흥댐에서의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김모(49·강진군 옴천면 봉림리)씨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물론 다른 주민들까지 허가신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상수원관리규칙상 원거주민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수면관리청인 수자원공사서남권관리단 측으로 부터 ‘수면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불허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흥군은 “장흥댐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며 어업을 허가할 경우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수면 어업허가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최근 장흥지역 환경단체와 장흥댐 인근 유치면 주민들이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 수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수자원공사와 장흥군에 불허처분을 해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장흥댐 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추가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 ‘상수원 보호구역내 내수면어업허가’와 관련 수질환경,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용역을 맡겨 앞으로 장흥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 관리 및 수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담수에 들어간 장흥댐에는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36건에 이른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9개 다목적댐(장흥·대청·부안·남강·섬진강·충주·주안·횡성·보령댐) 가운데 대청·부안·주안·횡성·남강댐 등 5개 댐만이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승=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역경제 살리자” 장성사랑운동 성과 작년 공무원 등 참여 상가 70억 실적

장성군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장성사랑운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성군은 23일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역 상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성사랑운동을 추진, 지난해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총 2053명이 참여해 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군 공직자가 1인당 매달 평균 72만원, 유관기관 임직원이 1인당 매달 평균 12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분야별로는 상가 66억원, 전통시장 3억6000만원, 대중교통 4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음식점과 주유소, 마트 등 상가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이 같은 장성사랑운동 성과는 민선 5기 들어 각종 인센티브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공직자들은 관내에서 소비해야한다는 의식을 완전히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유관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20여개가 넘는 기관이 장성사랑운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유관기관 임직원 1인당 소비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2.5배로 대폭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뒀다.

상무대는 각급 부대 방문객에 대한 선물을 장성에서 생산되는 편백류 특산품으로 하고 있는 등 유관기관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정승=김용기기자 yongho@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왕인문해학교에 학용품

영암군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중인 왕인문해학교에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오병욱)이 학용품을 기증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측이 내놓은 학용품은 8칸, 받아쓰기 등 4가지 종류 공책 4000권, 왕인문해학교는 학령기에 기본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본셈 등을 알려주고 영암군보건소나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강체조, 손거울 만들기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0년에도 왕인문해학교 어르신 학생들을 위해 2000권의 공책을 기증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19일 개강한 제6기 왕인문해학교는 65개 마을, 97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월19일까지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담양 한재中이 뜬다

작년 스마트교육 교육감 표창
전원학교 운영 교과부 장관상

담양군 대전면 한재중학교(교장 안병창)가 2012년도 학교평가·스마트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감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학교로 뽑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한재중에 따르면 전국 256개 전원학교 가운데 전남에서 5개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으며, 중학교로는 해남 현산중과 함께 교과부장관상을 받았다. 한재중과 함께 한재초등학교도 나란히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농어촌 전원학교가 된 한재중은 3년간 각종 사업을 마친 뒤 전원학교 공모 사업에 참여, 2012년 공모형 전원학교로 재선정



농어촌전원학교인 한재중이 운영하는 드림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생 20여 명이 수업이 끝난 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재중 제공>

전북

사라져가는 교가 되살린다 컴퓨터음악연구회, 380여곳 복원 책·CD 발간

지난 30여 년간 전북지역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과 산골 학교 380여개가 자취를 감췄다.

이런 가운데 현지 음악교사들이 정성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와 폐교의 교가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교가 보존에 나선 단체는 전북도내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컴퓨터음악연구회’.

이들은 시골 학교의 폐교 등으로 교가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끝에 2011년, 교가 복원작업을 마을먹었다.

이들은 발품을 팔거나 방학시간에 짬을 내 각 학교의 교가 수집에 나섰고 지난해 1차로 정상 운영 중인 중등

학교 380여곳의 교가를 책과 음원 CD로 발간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올 겨울부터는 초등학교와 폐교의 교가를 발굴해 복원 중이다.

정읍 회룡초등학교 졸업생 신작수씨는 “학교가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무척이나 아쉬웠다”며 “동무들과 함께 부르던 교가는 우리들의 옛 추억과 함께 하곤했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 이호상 전주 풍남중 교사는 “요즘 귀농 귀촌으로 일부 학교에 다시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곳이 있다”며 “문을 닫은 학교가 복고돼 저희가 만든 교가가 다시 학교에서 울려 퍼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하서 선생 학문정신 배운다
순창 ‘훈몽재’에서 23일 유림과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 유림들이 애송했던 경전을 외우는 강회가 열렸다. 훈몽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이 초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하서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순창군이 2009년 복원했다. <순창군 제공>

도내 15개 지자체 채무 1조6000억

익산시 3729억 최다... 군산시 813억 가장 적어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채무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했다.

실질채무는 지방채(지방채·채권)와 지방채 연간 이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포함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15개 자치단체의 실질채무는 1조6027억원이다.

이 중 지방채는 1조746억원이며 민간자본유치로 임대료와 운영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4874억원이다. 지

방채 이자는 연간 406억원에 달했다.

또 도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대비 채무비율은 16.14%로 집계됐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익산시가 54.39%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 35.75%, 완주군 26.17% 순이다. 장수군(0%)과 무주군(0.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질채무는 익산시가 3729억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익산시는 지방채 1986억원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가 1663억원이며 지방채 이자는 연간 80억원에 달했다.

반면 군산시는 813억원에 불과해 자치단체 수입·규모에 비교해 양호한 편에 속했다. 전북도는 3711억원, 전주시는 3408억원의 실질채무를 가지고 있다.

도내 15개 자치단체 지방채는 1조 746억원로 집계됐으며 단체별로 보면 전북도 3576억원, 전주시 2208억원, 익산시 1986억원, 완주군 950억원 순이다.

군산시는 기초 자치단체 지방채 평균 700억원보다 적은 353억원으로 가장 건전한 상황이다. 장수군은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지난해 지방채 상환을 시작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1300억원이나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실질채무 분석자료는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www.ngoik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군산 한미친선협의회 정기총회

2013년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공동의장 문동신 군산시장·존 더블유 피어스 미 제8비행단 군산공군기지 비행단장)는 지난 22일 리츠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 측 40명, 미국 측 36명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양측은 군

산시가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관심과 성원을 약속했다.

문동신 한국 측 공동의장은 이날 미군 측에 각종 축제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 뒤 한미 친선우호 관계를 위해 작년 자원봉사 펼친 미공군 군산기지 장병에게 감사패 표창

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성과관리 문화 확산 교육

남원시는 23일 청사 강당에서 부서 성과담당자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관리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남원시는 그동안 성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체계 설명, 성과관리 추진 방향 등을 직원들에게 설

명하기 위해 매년 전문강사 초빙 강연을 실시, 직원들의 인식제고와 성과관리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부서별 1차 심층 건설팅을 통해 성과관리 고도화 과제 발굴의 기초를 다지는 등 시 비전 및 전략 목표 달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 고추잎 활용 ‘찰보리빵’ 개발

순창군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찰보리빵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순창군은 23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회사법인 황금나무(주) 간 협력사업으로 기능성 고추잎 원기 1호의 고추잎을 활용해 ‘당도독 찰보리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고추잎 원기 1호는 고추잎에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AGI효소의 저해능력이 일반고추보다 4~6배 높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찰보리빵 판매에 들어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한지공예대전 출품작 공모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한지공예대전’이 출품작을 공모한다.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를 개최, 새 운영위원장에 유봉희 소장(한지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을 재

선임하고 올해 일정을 확정했다.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4월19일까지로, 출품 부문은 전통부문, 현대부문, 문화상품부문, 창작한지부문 등이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80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4월 25일 발표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